朝鮮日報

朝刊夕刊合六面

購讀料 一個月金六十錢 三個月先金壹圓七十五錢 六個月先金三圓四十錢 一年先金六圓五十錢(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活字一行金壹圓 報欄內 四號九字一行金壹圓 貳號七字一行金貳圓 特殊指定料五割增

發行人 安在鴻 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李容九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外米輸入關稅撤廢에對하야

一

日本의昨年米實收額은 第二回豫想보담도 또百二十萬石의減少를보게되야 그前年度의實收에比하면 四百十萬石의減收이요 平年作에比하면 二百萬石以上의減收이다 그結果로하야 本米穀年度의米穀需要供給關係에잇서서 日本米에朝鮮米及臺灣米의移入額을加하더라도 아즉도四百萬石假量의米穀이不足하겟스니 그것은外米의輸入에依하야 補充하지아니하면아니되게되엇다

二

그럼으로 日本政府에서는今月十二日附로써 今月十四日로부터十月三十一日外지의期間을限하야 外米輸入稅를撤廢하기로하엿다 外米의原產地되는東京、關實、西貢等地에는昨年에稀有의大豐作을보게되엇다한즉 그로부터서 外米를潤滑하게輸入할수잇슴으로 日本政府가이와가튼手段을取하야 每百斤에一圓式의關稅를撤廢하게되면그만치日本의米穀價를低廉하게維持할수잇슬것이니 이點으로보아서 適當한處置라하겟다 그러나 朝鮮에잇서서도 이日本의食糧政策에附隨하야 外米輸入稅撤廢의論이잇게된것은 不可解한點이잇다고하지아니할수업다

三

朝鮮에잇서서는 日本서보담그事情이特殊한바잇스니 昨年度의朝鮮米實收額은 一千五百三十萬石이엇슴으로 前年度에比하야 五十二萬石의增收를보게되엇다 그리하야 日本으로約五百五十萬石을移出할餘力이잇다고하는바 만일朝鮮에잇서서外米의輸入額을合하면 移出餘力은 六百四五十萬石에達하게되야 百萬石을增加할것이라고한다 그런데 朝鮮에잇서서의昨年度의外米輸入總額은 七十四萬石이엇섯다 만일그대로둔다하면 今年度에잇서서도 昨年度와類似한外米의輸入을볼것이다 그러나 日本으로도百萬石의朝鮮米를더移出하기爲하야特別한方策을取할것이면 朝鮮으로는 朝鮮米百萬石代身에 또다시外米百萬石以上의輸入을보지아니하면아니될것이다 日本에서 外米輸入關稅를免除하게되엿슴으로써 日本農林省으로부터 朝鮮總督府에向하여서도 그와同一한方策에出하기를勸勵하여왓다

四

그럼으로朝鮮總督府에서는財政上으로도 約百四十萬圓의減收를보게되면서도 그것을畢竟勅令에依하야撤廢하게될이라고한다 그와가티하는目的이 朝鮮自體의 要必에依하여서가아니요日本의 食糧問題의見地로보아서 하는것이確實한것이니 즉簡單히말하면 맛잇는朝鮮米를百萬石더日本사람의입에너키爲하야 取하는手段이라고볼수잇는것이다 勿論日本서外米輸入에對한關稅를撤廢하면 그影響을바다朝鮮의米價가高騰해지기어려울것이니 그機會에朝鮮米가더욱만히日本으로移入될수잇슬것이요 또日本으로한번輸入되엿든外米가다시朝鮮으로들어오는때는關稅의免除를맛게될것이다 그럼으로 朝鮮에잇서서 外米輸入稅를撤廢하지아니한다하더라도 그와近似한結果를보게될수잇슬것이다 그러나 積極的으로朝鮮에잇서서 그것을撤廢한다는것은 더욱易하게朝鮮사람에게粗惡한米穀을供給하고 그代身에實의良好한朝鮮米를 比較的廉價로 日本사람에게供給하는것이니 매우深切한意味가그안에伏在한것을보겟다 또米稅撤廢로因하야생기는總督府의歲入不足는 다시朝鮮사람의負擔이되고말것이아닌가? 이와가튼巧妙한經濟的搾取의事實을우리가엇지看過할수잇슬가?

南北平和에 中國元老奮起 世界的動亂을憂慮

(北京十七日發) 趙爾巽、孫寶琦、王士珍氏等元老等은上海出兵後의外交事情은全히危機에瀕하야何時英中間의戰爭이勃發하고延하야는他國外지其渦中에入하야世界的大亂을惹起할는지도몰을다고憂慮하는中인바此際에南北은對外的으로協同하라는和平運動을 일으켜上海、天津間의連絡을取하는中이라더라

『張作霖과妥協은 夢外에도不能』 即時別府로向하여 ◇……戴天仇氏談

(門司電) 中國國民政府代表로서重大使命을帶하고渡日한戴天仇氏는夫人을同伴하고鄕船山城丸으로上海에서十七日午前十一時門司着十一時四十分門司發列車로別府에向하얏는데戶畑明治專門在學中인數十名의留學生은國民黨旗를揭하고革命歌를高唱하야歡迎하얏는바氏는渡日事情에關하야左와如히語하더라

國民政府代表로渡日한것은아니나國民黨과中國四億民衆의希望을日本朝野의識者에게披瀝하야其諒解를求하는것이余의任務라 二週間滯在하얏다가上京할豫定으로近近「팜풀렛트」를發行할터이오我等國民黨이中國統一의目的으로進行하는事는勿論孫文先生의三民主義를實現시키고자하는意志밧게업는터인데我等의意思에共鳴하는者도增加할으로中國南北統一의理想도不可能하다고는생각지안흐며張作霖과의妥協은꿈(夢)에도생각지안는다고述하고英國의橫暴를非難하더라

勞農機關紙 英政府를大攻擊 大大的非難記事滿載

(莫斯科十六日發) 勞農機關紙「이스베누와」及共產黨機關紙「푸라우다」兩紙는英國內相「존손히구스」氏外務次官「로카칸푸손」其他英國閣員에對하야大大的으로非難記事를揭載하야曰彼等은露國帝政時代의駐佛大使로서目下英國에在住中인「사부린」과連絡하야英露關係의斷絕을策劃中이다또한過般總罷業其他外交關係로反共產黨西亞人에게積極的援助를受한事實이잇다고報道하엿더라

軍縮提議로 米國은孤立狀態 佛伊拒絕列國同樣

(제네바十六日發) 軍備制限에關한米大統領의提案을佛蘭西가拒絕하고伊太利도確實히拒絕할氣勢가잇고他列國도此에依做할模樣인데國際聯盟側의解釋에依하면此等의兆朕는亞米利加가더욱더욱孤立에陷할것이다시明白하다고하더라

海軍首腦會議

(東京電) 十七日午前十時海相官邸에서海軍首腦部會議를開하고伏見大將宮殿下를爲始하야東鄕元帥、財部海相、鈴木軍令部長、竹下、安保、白武各軍事參議官等이參集하야先히財部海相으로부터米國의第二次軍縮會議開會의提案을報告한後海軍側의態度決定에就하야詳細說明한後諒解를求하엿더라

日華實業의 對中態度決定 全然中止키로

(東京電) 日華實業協會에서는十六日午後四時부터幹事會를開催하고對中時局問題는協議後協會의最後的態度를決定하고同六時에散會하엿스나協議終了後、兒玉副會長으로부터協會에서今後取할態度에對하야發表한바에依하면近近右趣旨에基하야外務當局과隔意가업는意見交換을하고當局으로하여금對策에對하야遺漏됨이업시處置를取하도록努力할터이다 또한次回는二十一日에開會하고當日은過般中國에서歸朝한佐分利條約局長을招하야最近情報를聽取할터이더라

協會로서는中國現在의內爭에對하야는全히中立的態度를取하고어느勢力이將來中國을支配하더라도關係할것은아니나現下時局이不安한外닭에對中投資額二十億貿易額十億、價額이七、八億에나及하나日本의對中經濟關係가頗히危殆한狀態에瀕하게됨은對中關係實業家가참을수업는此際會에依하야時局에對한意見은外務當局의政策에任하고他面으로이와隔意가업는意見을交換하고當局으로도하여금對策에遺漏됨이업시할方針이라더라

吉會線終端港 雄基와淸津 二港併進主義說

港灣協會는吉會線終端港問題에對하야數回調查委員會를開하고研究中이던바理事會도大體委員會의決議를承認하고雄基、淸津二港併進主義를適當하다고認한外에 近近朝鮮總督府의意嚮을들은後決議文을起草하야首相陸海軍大臣、總督其他關係方面에建議할터이라더라(東京電)

齊氏子日本留學

(東京電) 中國與論學의總參謀長齊燮元氏의子齊鴻濤君은六名의親戚과同伴하야十六日午後八時二十分東京驛에到着하얏는데本年十四歲로來四月부터中學에入하고將來에는陸軍大學과帝大法科에入할터이라더라

外米關稅撤廢 平壤서도運動

今年中不足되는日本食糧米約四百七十萬石은外國米를輸入하는外에他途가업슴으로今番議會를經한後外國米輸入에對하야關稅를撤廢하기로하엿는데朝鮮은此法令의效果를엇지못함으로釜山商業會議所를爲始하야朝鮮各地商業會議所에서는朝鮮總督府에陳情書를提出하고朝鮮서도外米輸入關稅를撤廢하도록活動中인데平壤商業會議所에서도去十四日總督府에陳情書를提出하얏더라(平壤)

東海岸 交通復舊 十五日부터

道間積雪로因하야杜絕되엿던東海岸交通線은近日復舊에努力이든바江陵海東自働車會社에서는江陵元山間을從來二日間要하던것을來四月一日부터는當日에連絡하게設備中이며江陵三陟間도去十五日부터定期로運絡코저하는데三陟自働車會社에서도三陟蔚珍間을連絡코저着着準備中임으로杜絕되엇든東海岸交通線도不遠間復舊될터이라더라(三陟)

平南의麻產量 大麻만十萬七千貫

昨年中平安南道內의大麻栽植面積은孟山郡百五十八町陽德郡百九十一町寧遠郡三百八十七町其他總合一千八十八町이오苧麻의栽植面積은成川郡四十一町江東郡十三町其他總合九十三町인대收穫量은大麻가孟山郡一萬四千六百四貫陽德郡二萬一千四百十九貫寧遠郡三萬七千三百六貫其他總合十萬七千五百三十二貫의苧麻는江東郡二千二百七十六貫其他總合一萬五千四十五貫인바前年에比하면植栽面積으로三十町步收穫量으로一萬貫이增加되엇다더라(平壤)

千五百名增加 群山府의統計

群山에서昨年十二月末에調査한것에依하면現在人口數가二萬二千五百卅七人의增加를보게되엇는데이것을사람別로보이면男子가一萬二千二百 女子가一萬二百四十七人이오朝鮮人이一萬四千四百九十四人에日本人이七千五百五十八人中國人이四百八十五人이라더라(群山)

面吏員表彰

延白郡廳에서는去十一日優良面吏員表彰式을擧行한바表彰된吏員은延白郡銀川面長宋在籍同郡溫井面書記成有泰兩氏다더라(白川)

黃州에 禁酒講演會 十九日에開催

黃州郡永豐里勃年主日學校勉勵靑年會主催와朝鮮靑年支局後援으로黃州禁酒宣傳講演及討論會는去十九日午後七時부터永豐里長老敎會堂에서開한다는데入場은無料이라더라(黃州)

音樂講演會盛況

安岳郡猛虎宗曲面靑年會에서는去十五日에私立安興學校에서音樂及講演會를大盛況으로擧行하엿다더라(新寓山)

高敞市內에 電話架設有望 遞信局에申請中

高敞郡高敞面邑內里一般有志側에서宿題로要望하든市內電話架設問題에對하야去十四日外지當地電話設置申請者가三十二人에達하얏슴으로去十五日總督當局에認可를要求提出하엿다는데一般의希望을엇지아니不遠間되리라더라(高敞)

聯合講演會開催

南海郡南海面에서는一般農民의改善策을講究키爲하야來十九日午前九時부터該面梁川里公普堂에서聯合講演會를열터이라더라(南海)

忠北의電燈數 겨우四千六十餘個

忠北保安課의調査에依하면本道에잇는電燈營業地인淸州忠州二個所에서昨年末外지에需用家數及電燈取付數는如左하다더라(淸州)

▲淸州 定額燈戶數八百七十戶從量燈戶數四十五戶合計九百十五戶▲忠州 定額燈戶數三百六十九戶從量燈戶數四十一戶合計三百八十四戶▲電燈取付個數淸州三千百四十八個忠州一千四百四十八個合計四千六十六個

女流飛行士 朴敬元孃大邱에

朴敬元孃은十六日朝의列車에서釜山上陸하야大邱를向하야出發하얏다더라(釜山)

慶南物產共進 會場割等決定

慶南에처음인大聯合昌原郡外二府十八郡의產共進會는來四月八日부터二十四日外지七日間벗엇의名所인鎭海에서開催된다는데主催郡인昌原郡에서는目下이에對한準備에紛忙中이라는데그會場은左와如히決定하엿다더라(昌原)

第一會場(鎭海公立小學校)
第二會場(鎭海高等女學校)
第三會場(慶和洞公立普通學校)
水族館(行岩灣水產市場)

苧布에對한 諸項을決議 一疋稅三十錢으로 產業組臨總의可決

舒川郡에서는去十三日에產業組合第一回臨時總會를郡廳商工課長以外武井內務部長適知事代理外產業課長黃德純氏列席으로開한바同組合事業進行上에對하야左의決議가잇섯는데不遠間具體로確定되어三月一日부터實施할터이라더라

一、苧布檢定法改定 從來에는等級이잇고檢查後에卽賣하든것이今番에는特一二三等外等으로査定하야販賣케됨
一、苧布檢查方面 道로부터技術員을派遣하여檢定케할事
一、苧布販賣方法 卽接本人이販賣케되든것을組合에依賴하야組合에서卽接出產地에販賣케함
一、苧布原料供給方法 郡技所產地로購入하야現金販賣又는外上販賣를하여組合員에原料供給上便利를圖케함 但本件은組合員에限함
一、苧布에關한手數料徵收方法 檢査料以外市場稅地方稅를納付하는것을今番에는苧布一疋에對하여三十錢을徵收하고諸稅를免함
一、管理費徵收方法 漂白場과本組合에서徵收하고管理人을使用하여漂白場賃借料金으로一疋에對하여十錢式을徵收함
一、組合費納付에對한件 組合費는一株에十圓으로하고加入當時에一圓式拂付하고그外九圓은年分으로도納付케함
一、組合費取扱方法 組合費는本組合에서金融組合에加入한後聯合會에依賴하여貯出金으로함
一、組合利益配當方法 利益配當은年七分으로하는데苧布販賣者에對하여는販賣手數料가加入하여當配當金을支給하고其他現物販賣가無한者에게는出資金에對한配當金만支給함

煙氣된吉州돈 一戶平均三圓 六十三錢이나되다

昨年中吉州煙草營業所管內의一年間總賣上高가前年度보다葉煙草耕作廢止關係로一層倍增되어三萬八千五百五十三圓으로激增된바一日平均하면一百七圓가량이오此를管內六面總戶數一萬六百九戶에平均하면一戶當一圓六十三錢强이라더라(吉州)

共求殖產會 前途가有望

定州郡臨浦面東路洞路下에서有志金克煥金際大兩氏의發起로設立한共求殖產會에서는去十三日當地明信學院에臨時總會를催하고會員이積立租廿餘石은各人에게貸付하기로可決하고그外新事件도만히討議하엿다는데同會의前途가有望하다더라

鎭南浦在穀高 다달이激增

鎭南浦倉庫株式會社의調査에依하면現在鎭南浦港에在穀高는昨年一年에比하야五萬六千八十八石이增加되엇고前月移高와本月入高合計三十四萬一千四百二十六石인데出庫高는五萬四千三百二石이오現在高는十八萬七千一百二十四石이라더라(鎭南浦)

事故人이豫算、다매우緊張되엿다더라(鎭南)

三密間 道路改修 工費十萬圓

三浪津密陽間의一等道路는四里半中一里半은旣히竣工하엿고其餘三里는今年六月中에는全部竣工할모양인데그工費는八萬四千圓이고附屬工事外지約十萬圓이라하며또一方釜山間의東海岸道路도今年五月頃에는竣工할豫定이라더라(釜山)

護民團事件과 運動線統一 等重要事項決議 在滿勞力靑年會에서

北滿洲寧古塔에잇는勞力靑年會에서는去六日에定期總會를當地에서開催하고 一、經過事項報告(金東植) 二、勞力靑總擴大委員會報告(朱東振) 三、東興中學紛糾事件 四、護民團事件(當地에서護民團이라고發起된事實이잇는外닭에이問題가잇섯슴) 五、女性運動、任員選擧 七、其他事項等을附議決定하엿는데그大槪는다음과갓다더라(寧古塔特信)

一、組織問題 勞力靑總의細胞團體가잇는곳에移居한會員은該地方靑年會에轉籍케하고其他地方에移住하는會員의게는意見을聽取하야轉籍을保留하거나或除名을하고附近에靑年會를조이組織하고靑年들을入會시킬것

二、敎養問題 一、靑年會員及一般民衆의修養에關하야民衆自體로組織하노록活動할것 二、靑年會員은隨時讀書會、討論會、講演會、等으로修養할것(三은略) 四、民衆的修養機關이成立되면本會에서는新聞雜誌를諸機關에넘길것

三、經費問題 去年度月捐金米納會員은每人一圓式納附請算하기로하고今年度年捐金은二圓으로함

四、少年部問題(略)

五、任員改選 趙光一 金東植 韓玉鳳 柳重熙 康鎬洛

六、東興校紛糾事件 走狗輩의行動의際討議演을하기로하고맘아서一般的으로尹和洙尹益善韓重燮三氏를派遣하야그內容을詳知한後新幹部에報하야態度를決定하기로함

七、護民團問題 護民團을創立하는데에는調查委員二人을派遣하야其行動을防止하기로함

八、女性運動 女性運動을積極的으로應援하되爲先自己家庭부터勸勵하기로함

九、其他事項 三月一日의紀念을期하야運動線의統一을促成하기로함

孟博線好況

京義線孟中里驛으로부터博川邑內外지通한孟博線은昨年十二月十日부터開通되엇以來事業이興旺할을보아

農村福利를 企圖하고저 農友會發起

定平郡府內面靑年諸氏는農村의敎育과無產農民의福利를企圖키爲하야去十三日東亞定平支局에集合하야農友會發起大會를開하고綱領及規約의草案을決議하고來二十七日午前十一時에天道敎貴宅에서創立大會를열기로하고韓炳洛氏外十二名의創立準備委員을選擧하엿다더라(新上)

童話會를 中止시켜 江景에서

江景에서는去十四日午後七時當地兩町勞働組合階上에서童話會를開하고京城五月會丁洪敎氏가『삽세인벌두소수』라는義勇少年의童話를말하는中臨場警官의注意는通呼하며結局中止하지하게되엇더라(江景)

泗川의 畜產品評會

泗川畜產同業組合에서는去十一日當地靑年會運動場에서四面聯合品評會를開하고重勝道技手의審査를마친後當地郡廳에서賞品授與式을擧行하얏는데餘興으로는脚戲大會와宴會가잇섯스며受賞者氏名은如左하더라(泗川)

▲畜牛等級=一等徐相熙二等三人三等五人四等九人
▲畜豚等級=一等德原二等二人三等二人
▲畜鷄等級=二等朴晋鳳外一人二等一人

高敞校村里 邑內로編入

高敞郵便所에서는高敞面校村里를從來市外로取扱하든것을一般의便利上來二十一日부터邑內里市內로編入하야郵便、遞送取扱을할터이라더라(高敞)

務安義山 農民組合 十三日에創立

務安郡一老面義山里九井里外五洞里에居住하는東浦大池農庄小作人等은自今十年前부터舍音金鍾璜의無理搾取와無道한壓迫에呻吟하며오든바몃가지條件을틀어回收한일外지잇섯는데그後더욱小作人들의組織的團結을늣기고李京鎬外諸氏의發起로去十三日一老面義山里에서農民組合創立大會를開한바數百名의組合員과遠近各地의數十名來賓이며警官의立會로開會辭와來賓諸氏의熱烈한祝辭를마치고議長李京鎬司會로經過報告와規約通過及執行委員廿一人을選定한후萬歲三唱으로閉會하엿다가다시그자리에서臨時總會를열고聯合會會否問題에對한數百名組合員의激憤이으칠줄모르다가合會金繼璜을잡見하는同時에永永交際를斷絕하기로一致可決後남은問題는執行委員會에一任하고閉會하얏더라(木浦)

(規約略)
◇常務執行委員=(庶務部)李京鎬 崔光純(經理部)金相郁(敎養部)羅鍾寅 外五人
◇執行委員=李千洪 李成文 李宗鎬 吳成吉 李七星 趙在守 金在九 李成春 崔允仲

臨時四萬圓增 元山學校費 第二普移築費

元山學校費豫算會議는來廿二兩日間元山府廳樓上에서開催할터이라는바그豫算原案은左와갓다더라

◇歲入
經常部 三九、一七四圓
臨時部 五八、〇六五圓
合計 七、二三九圓

◇歲出
經常部 四二、〇六八圓
臨時部 五五、一七一圓
合計 九七、二三九圓

此를前年度豫算額에比하면歲入經常部에서四百五十九圓이減되고臨時部에서四萬二千九百四十五圓이增하고歲出經常部에서四萬二千二十四圓이增加하야結局總額에서約四萬二千圓의增加는此는第二普通學校新築移轉關係라더라(元山)

江陵臨院間 郵便自動車連絡

去十六日부터江陵과三陟臨院間에는郵便自動車의連絡을開始한바發着時間은다음과갓다더라
江陵便着十一時五分發二時三十分▲臨院便着十一時五分發二時

松汀里에 繁榮會創立 去十三日에

湖南線松汀里有志鄭純朝氏外數名의發起로松汀繁榮會創立發起會를組織하고그동안準備中이든바去十三日南鮮興業社에서鄭純朝氏司會下에松汀繁榮會創立總會를開하고發起人代表의經過報告가잇슨後臨時議長을鄭純朝氏로選擧하야規則通過와左의任員을選定하얏더라(松汀)
▲會長鄭純朝副會長張安燮理事李成倫評議員柳秉泰秋永明柳秉雲崔英漢鄭熹榮外二名

地方集會

●晋州勞働共濟會=執行委員會를去十日에開하고來十九日第五回紀念式에對한諸般部署를決定하고同日午時十一時同會館에서紀念式을마친後講演及餘興이잇슬터인바各支部의多數出席을希望한다더라(晋州)

●黃州勉勵靑年定總 去十五日黃州邑西部禮拜堂內에서열고左의任員改選及諸般事項을討議
會長洪性昌 副會長李庶根 書記李允浩 會計金益烈 討事部長王啓俊 新聞部長李庶根 顧問李學巖(黃州)

●黃州邑敎會聖經研究會 去十二日에第二期正初男女都査經會를開한바講師는宣川의張奎明黃州의李學巖兩氏더라(黃州)

各地鄕柵

松汀 湖南線松汀里松汀同友會의主催로今十八日午前十時부터南鮮興業社事務所內에擲柶大會를開한다는데會費는一圓式이라더라(松汀)

社告

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總務兼記者 金福寬
記者 朴永根
記者(東林駐在) 朴潤泌
顧問 吳致殷
朝鮮日報宣川支局白

今般宣川支局을左와如히設置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一、支局名稱 宣川支局
一、支局位置 宣川邑內
一、職局員氏名 支局長 李廷珪
朝鮮日報社白

本支局記者許文日氏는解任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朝鮮日報龜城支局白

本支局에서左와如히記者를採用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記者 裵燦京
朝鮮日報龜城支局白

本支局에서業務를擴張키爲하야左와如히分局을設置하얏사오니愛讀者諸位는照亮하소서
一、分局名稱 龍仁分局
一、分局位置 龍仁邑內
一、分局員氏名 分局長 兪仁穆
朝鮮日報廣州支局白

本支局에서業務를擴張키爲하야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記者 南相薰
朝鮮日報善山支局白

本支局에서業務를擴張키爲하야元古阜市內에分局을設置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分局長 蔡山洪
記者 金海剛
朝鮮日報井邑支局白

002353

映畫小說 白衣人 【二十三】 李慶孫作

수자는 아즉눈도 떠볼생각이 못되지만 그가만약 일후에라도 자긔의경험한그세상이야기를하자면엇더한형용사를빌어다 쓸것인지

그곳은 아모것도업는곳이요 빛하서 아모빛갈도업는것 가는것다눈앞이 단지컴컴하드다는 것도외누리일만치 그곳은 오죽쏘업는허공이엇섯다 그러나온호지도안엇스며 아무리 처도 안엇다

『아유 설명할수가업스니이약어안할테야』하며버렵어야은짓불만치 참으로 아무것도아니엇다

『그커 아누것도아니야세장도업고나도업고 그커그쌘이야』가정확한 감탄사라 할만한세상이엇다 그러하든것이다시왜어낫다하면 그것이리워이냐 손해이냐 의문에는 동재처고 왜어난당자로서는 알수업시 귀찬흥아야겨짓업는 일윈것이다 그래서수자는

『아이실여……』는한것이다

며나자긔는지금왜!왜!또하고하엿슬을 왜다르니?이것이 인생의모욕이냐』그야말로손안에 폭탄이라도 잇것스면 이마당안하야 팡!팡!쏘아버리고도 십헛다

그가려지금수자의 머리맛은 조곰이잇는감각을바다볼만하기는 하엿스나 아조꼬지이고 뭉울뭉직이기는 실혓다 다시말하자면정신은 말정하나 맘작도하기는실혓다 한편머리로만다는것이 자긔의오상에서 어나괴관 하나를 쓰매즘과가려 실혓다 그래서 그는지금눈도 맘작거리지 안는다사실그가려 심신이 지처엇슬것이다엽헤서 지절거리는 소리도듈리기는하엿지만그것이무슨 소용으로 무엇을 이약이하는인지 누구들이 안젓는심인지는 알아보기도실혓거니와 알필도 업는듯하엿다

그방에지금 안저어잇는 사람은웃놉자든 시약시와 긔호와 일본사람의야마사씨이다 야마사씨는긔호에게우리집에는일백여섯살이나 먹은사람이 잇는데 그것이 자긔의할머니요 자긔는 미상을 팬찬케사는집 둘재아들이란소리도부터 시인이요 공상감독이요 과학취미도만타는 인사를마처는다음 악가 자긔의활약한자랑을 근이십분이나 느렷노코잇는터이다 자던거를 라고 고개를넘으라니 바람은 엇더코 엇더케불엇스며의사람을왜어노혓다

안어도 긔호는 지금딴말이매산가트녀서도맘놋하여을뿐이다 수자의눈은 앗가와눈이 아니라 이제는 사는사 의귀색이 몰고잇다 빵에는흰술어흘려서 역시 울고잇는 긔호의눈에 붉히기는 비행긔로놉히떠서 압록강을나려다보는것가텃다

『실타는데도……』

수자의입에서 그소리가 나왓나

『왜눈그래……실타는데……』

사나히의가슴에 뺨을대히며 수자는눈물고이잇다 수자는지금 누구에게 안긴것을모르는게 아니다만 그를 그와머하는평소의례범대로 말하고잇슬힘이업다 그래서그와가티 어버이에게도아니요 동생에게도아니요 선생에게도 아니오 련인에게도아닌 어됴도 귀소면한것이다

『정신이나세요? 수자씨정신이도세요?』

긔호의웃성에도 눈물이 반주를하엿다 별안간누구인지 그두시람보나도 더크게 늣기는소리가 방안을흔들엇다 그사람은 수자의 발치우기편한구석에 웅크리고안젓는사람 젖가슴안에는 어엽비와 네개의밤옷을 감초고잇는사람이다

『인케는 계우지안허도조홀것요?』

야마사씨가 긔호에게 뭇는다

『그러켓지요』

긔호는돌아보며 그가티 대답하엿다

니솔진나서는 의사놈의 태도가 이러하드라는 활동사진을 그리다가 인케는 인생이니사회니녀성이니 남성이니하며 렬리(哲理)를느려노코잇다 긔호는그커『응』『응』하여버릴사히이지만애쓰준수고의 갑으로다도 정다히대하여줄수밧게업섯다그리고각금가다가『자긔가본 수자씨에대한감상』이라할지 그비슷한례찬도나오니 자세히 듯시아니치못할순간도잇섯는것이다

별안간『왝!』하며누어잇든수자의 몸이들신한다 긔호는얼른달려들어 그의몸을 이리키다하엿다만 수자의손은 실타는뜻으로허공을 휘커엇다

『아직도 불쾌하시지요?』

긔호는 수자의두눈첩이 열리는것을 내려다보며그가티 물엇다 수자는 아모말업시 닯으른입으로 얼골을좌우로 흔드렷다아직눈불싸지는 우려나지 못하엿정만수자의얼굴은 확실이 우는사람이엇다──나에게는 하날이이다지도 고마운데 그대는부엇이슯허!──그것을보는긔호의눈자위도 갑작이 뜨거워젓나 긔호는 벌서세번재 우는심이다 머리를잡는 긔호의팔은 싸르눌멀리어온다 멀리는그시경이『쉬라』의서이라치면 긔호의부드는노래는반드시 이러할것이다

『오!……』

『오!……』

그리고 울어버릴것이다 그리지

『그럼커는버저일어습니다』

『그러실요?…… 여러가지로 미안합니다』

『천만에……』

죽는이를 구하야줌에 련애라는보수를 생각만이라도한것이 잘못이라고 늣기엇는지 긔호와수자의사이를보니 자긔의 압길이눌리엇는지 몰아서나가는 야마사씨의뒷모양은쓸쓸하엿다

『왜울우?웃읍시다……』

시악시편을바라보는 수자의 입에서 그가튼긔적(奇蹟)이 힘업시흘럿다 수자도인케는 고마운이를 고밥게녀일만한 정신이돌아든모양이다 긔호는 넘으나며젼하야서 뎍당한말을 찻기가어지러웟나

『선생님……』

『네?』

어린이의 어리광가텃다

수자의 길게쓴는한숨이 자긔의것양복읏둘코 좃기를뚤코 삿쓰를뚤으며 가슴에뜨거히 닷는다

『선생님……』

『네?』

『……왜 우세요』

『……아니 웁니다!』

무어라고 대답하여야 올흘냐

『켜빵에 뜨거운것이 떨어젓담니다』

이순간긔호는 엇지하고 십헛스랴 그러나 수자는자긔에게『나는사랑압니다』『한적은 업는사히다

基浩……李素然
壽子……金靜淑

一驛一店主義는 絶對反對하기로決議
십칠일전조선운수업자대회에서
事務一切는鮮運同友會에

석간긔보‖조선운수업자의회시긔뎨인 전조선 운수업자대회(全朝鮮運輸業者大會)의주최측인선운동우회(鮮運同友會)에서히더니총회의오후두시경까지의경과는 별항과가티 오후세시반경에 총회를마치고 십칠일오후네시에 그장소(부월관시뎐)에서주최측에대표하야 선운동우회간부강창희(姜昌熙)씨의개회사가주약의뒤를니어 잇슨후 소집한취지를말하고 좌장으로뎐산홍순희(洪純熙)씨가썩이어결의안에들어가매 장내에 가득한니백명의 회원은 극도로긴장되엿다결의안의 일역일뎜주의(一驛一店主義)에대하야토의 하게되매 마산명도석(明道奭)씨의일역일뎜주의를 절대로 반항하자는의견과경성리상근(李相根)씨의선운운송주식회사(鮮運運送株式會社)를조직하야일역이뎜주의를내세우자는등의의견이논분하자농네시반경에뎌도국의당로책임자호뎐(戶田)리사의설명이될항과가티잇슨후 군만장일치가결한후 명사의강연에들어가니다음과갓다

名士의 講演도
뎌절한실례를 들어단결력설

박수소리에 싸히어 조선일보주필 안재홍(安在鴻)씨 등단하야 텰도정의현안이든 일본의 일역일뎜주의는 실현의 도뎡에 잇스나 조선의그것은 텰도정의 실현방법과 특수의사정이 잇다고 조선텰도 당임자는날하나 경남도텽이 진주시민의 열렬한반대로 일시이전치 안켓다는 당국의 명언이잇섯슴에도 불구하고 그후멀지안아 그것은 일시춘몽으로 살어지고 필경에는 부산(釜山)으로 이뎐되고 말엇다는실례를 들어밋기어려운 당국자들의 정언을 말한후 직업으로본조선 현하의 생활문뎨와 실디문뎨를 론파하고

니어서 동아일보 최원순(崔元淳)씨가 등단하야 세계여러나라의 례를보아 조선의 운수업이라는것은 조선 문화의 삼분의하나인만큼 큰 책임을가젓스며 또조선 산업계의 경제문뎨로도 동맥의 디위에잇슴을 말한후 이러한부접고큰 직접간접의책임자인 운송업자들은 이러한 위긔에 처하야 먼저약자로서의 유일한무긔 즉단결에잇다는 것을 말하매

장내에 박수가우뢰가티 이러낫섯다 이리하야동록시반경에 비상히긴장되엇든 장내는 륭々한 주악의소리로 산회되어 긔념사진을박이후별실의간친회로옴기어 간담의피력이잇슨후 헤어지니 때는밤아홉시경 이엇더라

◇決議案

우리는(선운동우회원일동)일역일뎜주의를 절대로반대함의안을결의한후이문데로인하야 회원전부즉 전조선운수업자들소집할필요가 생길때는모든일데권리를선운동우회에 일임하기

株式會社를發起
滿場一致로
선운동우회를법인으로
十萬圓資本으로可决

조선운수업자대회경과는별항과갓거니와 동주최측인 선운동우회의 당긔총회의 중요한결의사항은잉여금처분안(剩餘金處分案)에대한승인과 그후다년숙안이든 조선운수업자를 합동한권데의 주식회사 창립안이바이것도역시 여가백임으로 만장일치로가결되엇는데 이것이 실현되는때에는 실로 남부럽지안흔큰세력을 가질터이라하며 그창립안은 다음과갓더라

一、鮮運同友會는法人으로組織을變更하야計算機關으로서遺漏이업도록財團을만들라함

二、爲先資本金十萬圓의株式會社를創立하고漸次增資하기로하되株數는二千株로하고株의額面은五十圓으로함

三、第一回拂込은一株金十二圓五十錢으로하되此를五回에分納하기로함

四、發起人은現在鮮運同友會會友로하고그中에서創立委員은十名以上廿名以內로하는것이조흘듯함(리은見)

五、會社名稱及株式의割當은創立委員이適宜處理하도록함

六、은略함

七、創立事務所는鮮運同友會內에置하고創立年月日株式公募日等은創立委員에게一任함

時期尚早
朝鮮엔
아직고려중 鐵道局 戶田理事談

텰도국당로자임사호뎐리사(戶田理事)의 당일석상에서 언명한바는 일본의그것과 조선과는 특수한관계가잇슴을 늣긴다그럼으로운송업이 자유영업인관계상다소의 폐해는잇스나 이것을정리하는의미로 이번부터일본에서는 일역일뎜주의가 대두된것이오 조선은 그보다다른방식으로도 정리코저하야 위선승인규뎡을개정하게 이른것이오일역일뎜주의에빗초아 다소간초만은잇스나아직 구톄안을 보기까지는시긔문데이다 그럼으로우선 운송우회가튼 조직긔관을 통하야일반 운수업자는 개선하기에 최선의노력을 앗기지안는다면 조금도불안이업슬줄안다하고말하엿더라

金翊煥氏出獄

지난십오일에

작년五월순종(純宗)뎐하 인산(因山)당시에 동경(東京)에서 모종의 운동을계획하다가 일시미연(未然)에 발각되어 즉시동경에서 대포되어 경성으로호송되어 경성디방법원에서 딸개월징역의 관결을밧고 이래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복역중이든 김익환(金翊煥) 씨는지난십오일 오후여덜시에 만긔출옥이되어서대문훈동(寬勳洞)딸십삼번디 김종완(金宗完) 씨집에잇다더라

一年間漂浪한青年數
義州서만八十二名
모다살수업서떠나는자들
農村破滅은此로證明

작년사월부터 금년일월까지 열달동안에의주읍내(義州邑內)에 사는 청년남녀(青年男女) 들이 동경찰서(同警察署)에서려행권(旅行券)을 마타 가지고해외(海外)로표랑의 길을떠나간수 가 팔십이명이요 방금 려행권하부원(下附願)을 제출하고 장차표랑의길을떠나가랴는수가삼십이명이라는데 그들은보다 삼십미만의청년들로서 미령『비률빈』(米領比律賓)으로간이가뎨일만코그밧게는영령향항(英領香港)괴불령안남(佛領安南)등디이바 보도가차비외에얼마안되는자금으로인 삼행상(人蔘行商) 기타로동을 목뎍하고 고향산천과부모친척을 작별한다는데 농촌에서수입이업는 생활을 지속할방도가업슴으로 부득이 그가티떠나감이라더라(의주)

한징業者盟罷
리발소소위에늑개

지난십사월부터 개성(開城) 시내구개소의 한징은 몰넌히동맹휴업을단행하얏는데 그원인은 시내 각리발업자들이 손님에게 한징에서 면도하야주는것은 리발업자에게 다대한방해를 준다고 당디경찰서에의뢰하야 이것을금함으로 한징업하는 사람들은 면도아니한다고 손님이아니올것은아니나리발업자들의소위가넘우도 분하야일시 휴업을하고일반사회의 여론을 기다린다하며 그전부터한징에서는 손님의머리밋을 처주엇든바 근래와서는 머리밋을 치는사람이업고 면도하는 사람이 만흐엿다함에한징업하는사람은 이것을아주 금하는동시에는 시내구개소의 한징업자는아주파업을하고말작뎡이라더라(개성)

長野測候所 地震感受
근래희유의디진

일본장야측후소(長野測候所)는 십오일오전열시삼십구분과동일한시오십구분의이회에근래에업는 대디신을 감수하엿는바 산뎡거리(算定距離)는 오륙백리로 『캄찰카』남부나 으으 대만부근과 갓다는바 진원디(震源地)가 만일륙디(陸地)에 갓가운데일것가트면 적지안흔 피해가 잇섯스리라고관측된다 더라(십륙일상야발뎐)

金하는바 예금은안동현으로부터보내지나 아조나 됴사하이며 금명간 천구서원 부산에온다는바 그때에는모든것이 판명되리라더라(부산)

鳴川青年會의美擧

보녕군대천면 명천리(保寧郡大川面鳴川里) 명천청년회에서는재래로 자선사업의실취이 만흔중작년겨울에 동리에사는강근례(姜根禮)의전가족이병에걸리어수십일을 중중하는중 치료할방침도업고 겸하야 수쌀을할하야 그정상은 참으로 볼수업시되엇스며 동리(同里) 김영오의처는 해산을하고도 먹을것이업슴으로 수일을 꼬닥하야 부승이생기고 긔갈에견대지못함으로 그형상을보고 동청년회 역원서완식(徐完植)리정호(李廷鎬)김하성(金夏成)권중식(權重植) 박태양밝긔로 동리회원에게 원조를바다 백미십여두를 수합하야강근례와 김영오에게 분급하야생명을보전케하엿슴으로부근인사들은 명천청년회의미거를 찬송들이한다고

威脅毆打專門의驛長
排斥運動이勃發
차장역수인부들합부로란타
관계여원은사장에게단원서

조선텰도경남선(朝鮮鐵道慶南線)북마산(北馬山)역장 도변류길(渡邊柳吉)(三四)은 대뎡 십사년륙월에 북마산역장으로 채용되엇는데 본래성질이 불량하야 하물(荷物)운반(運搬)하는인부(人夫)를 따리기가 례사로하든터에 대뎡 십사년 십일월십사일밤에 술이만취하야 하물을감시하든㊂운송뎜 인부를 란타하야 고소까지 당한 일은 그당시본지에 상세히보도된바 어니와 그후 도변은 북마산역소속김용주(金容柱)운송뎜을아모리유업시폐업시키고 수일후에 김용주에게 사람을보내어 마산부수뎡(壽町)취선뎡(醉仙亭)으로오게하야 기생삼십과 유흥비도합삼십여원을 쓰게하면서 운송업을 복업케할터이니 형식상으로 역에와서사과만하라고한뒤에김용주는 것버하야 하기실흔사과도하며 적지안흔 비용만쓰도록하고는 차일피일하고 삼년동안 소식이업서 김용주는 소송을 걸겟다고 방금분개한다는데 금번동역에서 문뎨의 붉엇이 날게되것은 지난 륙일밤 열한시에 북마산역수(驛手) 강모와 리모정모의세명이 술을 역사무소에서 조금마신뒤 역부정범이(鄭範伊)(三○)이가 면쓰하는중로변에 도변이가 돌어와서 근신중에술을마신것이 잘못된일이라하면서 전긔 강호정(姜鎬政)(三二)과 리우병(李旴炳)의두사람을 함부로따린것이 역장배척의원인이라는데 그두사람은 삼사일간휴업까지하고 조텰회사출장소의 태도만 기다리든중 전긔도변은밀하기를 그두사람을 다시복직케하면 자긔가 단연코 사퇴하겟다하여노코 아직실행은업든터이며 더욱이 자긔입으로 근신근신하면서 십이월삼십일밤 역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일대분긔으로 거데잇든 부하에게 주의까지비든날도 잇슬뿐외라 역내 에서 매월 수삼 회식 연회한 일이 잇슴도 불구하고 자긔 부하 가정초도리에 술조금 마셧다고 란타하얏스며 설혹근신중이라 할지라도 구타까지한것은 넘우상식에버서난일이 아닌가하며 거년사월경에 차장 김남도(金南道)라는사람을 아모리유업시 더린도잇섯고 지난여름에는 텰도공부에게 넘우가혹하게하다가 십여명이 자당하야 삼져모자한일도잇섯는데 좌우간역장으로 그와가려 부하와반목으로 지나는것은 유시못할바인바 이와가려 불량한역장을 추너하고 잇슬수업나는 조건으로 향단간두구든지 던근시커주기를 바란다는탄원서를 조선사장대천(朝鐵社長大川)씨에게대출한다는데 경남선 종업원(從業員)은 물론 일반부민도 그를밴가히 대하는사람이 업시 모다그의추행을 간부는 무엇을하고잇는지 묵인(默認)한다고비난과원성이 놉다더라(마산)

凌辱未遂로抱恨
人妻를亂刺重傷
겁탈하려다뜻못이루고
전신을찔러중상을입혀

에고소하려다가대포되어방금엄중한취됴를밧는중이라더라(화천)

강원도화천군 화천면신읍리(江原道華川郡華川面新邑里) 일백이십이번디 강백운(姜伯雲)(三六)은 항상동리 十백四번디에사는 김중엽의처신씨(金仲葉妻申氏)(四十)를 홈모하더니 지난팔일오전넘시반경에 가족이 출타하고 전긔신씨혼자잇는것을긔회삼아 겁탈하려하엿스나 반항을 하야 뜻을 이루지못한 강백운은분개하야 함부로란타하고 단도로서 현장은 류혈이 랑자하고 얼굴, 가슴, 국부등에 약이개월치료의중상을내이고 도망하엿는데 이광경을 당한피해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야 소관경찰서에고소하엿는바 가해자 장백운은 신성녀가자긔의 질녀를유인하려한다는 흉계를하며 경찰서

牛車에小兒轢死

지난십오일오전열시경에대구시내본정버뎡목(本町)한성은행(漢城銀行)압길에서본정일뎡목삼이번디배상희(裴相喜)의손자해민(海民)(四)이가 길거리에서 놀다가 영천군북안면송포동(永川郡北安面松浦洞) 안삭불(安朔不)(三一)의 마차에치어 이수일이상치료의중상을 입엇슴으로 그이웃병원에서치료케하엿는바생명에는 관계가업스며 마차부는 소관서에인처하고엄중취됴중이라고(대구)

平壤朝鮮物產獎勵會
宣傳大會의盛況
남북량대로난후어가지고
구악을선두로세라를산포
空前의盛況으로終幕

긔보‖평양에잇는조선물산장려회(朝鮮物產獎勵會)에서는선뎐대회를 열기위하야 예뎡과가티지난십륙일오전열한시평양긔독교 청년회관뒤뎡원을 뎡에모하어『동해人蔘과백두산』이란국됴의주악으로 개회하얏는데 참가된 남녀단데가 십여곳이오 모힌사람이 무려수천명이나 되엇는데 윤주일(尹柱逸) 씨의 취지설명과 조만식(曹晚植)씨의열렬한 연설이잇슨후 모힌회원을 남북두대로난호아 각각 군악(軍樂)을 선두로 평양시내를 남김업시돌며 선뎐『비라』를 산포하고 다시긔독교청년회관으로모히어 만세를 세번부른후 폐회하얏는데 그선뎐비라에 쓰인문구는알에와갓더라

우리물산으로살자

다른말하기전에 우리보다 먼저깨고 더잘살며 산업과문화가 극히발달된 독일국민의자긔나라물산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좀소개합니다

一、독일국민의 실생계(實業十誡)중

二、외국물건을사면 네나라가가난하여짐을항상마음속에두어라

五、외국식료품을네밥상에노치말어라

八、네몸에는독일서짠옷감, 두르고 네머리에는 독일서만든모자를 올려노하라 조고만물건에 대하야서도이러케하여라

九、네가가진동은독일사람의에아모나라사람에게든지 리(利)롭게하지말어라

十、남은무엇이라고떠들던지 너는이계명을조곰도소홀히생각지말어라

그러면 우리는업다 억한우리의처디와 형편을 돌아보아 크게깨다름이 잇서야 되겟슴니다

우리가만일 살생각(生存意識)이잇슬것가트면 자작자급(自作自給)의 길로뜻을 철더히 실행하여야 되겟슴니다

우리는 조선물산을 먹고,입고,팔고,사고 씁시다 싸든지 비싸든지 곱든 밉든시 어더혼지 우리의물산으로 살겟다는각오가 잇슴니다

평양조선물산장려회

咸興火災
損害七千圓
온돌에서발화

지난십삼일오전세시경에함흥군운흥리김조규(咸興郡雲興里金助奎)씨집에서불이 나서 전소하엿다는바 원인은 온돌부엌에서난다하며 손해는약칠천원가량이라는데 동오시에 겨우진화되엇다더라(함흥)

◇主人錢竊取逃走 경북경주군읍내면도동리(慶北慶州郡邑內面東里)에 본적을두고 시내욱정이정목일백육십삼번디(市內旭町二丁目) 부덕선길(富木善吉)의집에 고용으로잇든김일순(金一俊)(一五)이라는소년은 지난팔월삼십일밤에전긔부덕의집돗장속에잇든현금일백이십원각수를절취하야 가지고도망한사실이 잇서시내각서에서는전긔소년을대포코자로력하든중십오일오후세시경에시내종로삼뎡목(市內鐘路三丁目)로상에서마츰순시중이든종로서원에게발견되어즉시본서로인치되어취됴를밧는중이라는데 동소년은 그동안 시내각처로 돌아다니며 군것질과 롱처장에 절취한돈 일백이십원각수를 전부 소비해 버리엇다는데 더욱이이소년은 몃달전에 의지할곳이 업다고 종로서에 이르러구됴를 청함으로 종로서에서는 즉시 화광 교원(市內和光敎園)에보내 동교원에서 전긔부목의집에 소개하야 고용으로잇게된 것이라는데 동소년은불일간 개성(開城)에잇는 소년감으로 송치되리라고

龍川郡廳金庫를盜失
犯人은博川에서逮捕
눈치다가금고보고훔처가
◇犯人事實一一自白

지난달삼십일밤 평북 룡천군청(平北龍川郡廳) 서무계(庶務係)에서 사용하든 수제금고(手提金庫)한개와 그속에잇든현금십원남짓과 엽서(葉書) 백여매와 학교조합비 천여원의저금통장과 기타중요서류가 들어잇는것이 돌연히 업서젓슴으로동군텽에서는 즉시소관룡암포(龍岩浦)경찰서와평북도텽(平北道廳)에보고한후 각관계당국자들은 비밀리에주야로 범인수사에 노력중이든바우연히지난십일동군룡천면룡암동(龍川面龍岩洞)뒤동창산(東倉山)에서보통학교학생이 금고한개를 어더왓슴으로즉시유력한증거를삼고본래부터 주목하여오던 동군룡천면룡암동(同郡龍川面龍岩洞)에잇는 박삼명(朴三明)(三三)의집을수색한 결과과연 엽서백여매와룡천군텽(龍川郡廳)이라고인쇄(印刷)한 봇투가 잇슴으로즉시주인을 차진즉박천(博川)자긔 형의집에갓다고함으로 룡암포 경찰서에서는 박천경찰서에 뎐보로조회하엿던바지난십삼일에데포하야 삼사일에 룡암포경찰서에서 인수하여다가 심문한결과 그는 얼마전에 전긔군텽에서는 물건을 내일째에 금고둔것을 자세히 보아두엇다가 그가터훔처갓다하며 룡상과서류는 룡암포 야소교(耶蘇敎) 당압헤 던저바리고 현금십여원을 다소비하엿다고 일일히 자백함으로 일간검사 국 으로압송하리라더라(룡암포)

며조방종은항상그인해를의심하며지내다가 작년십월경 어느날저녁에 전긔엄이가 어디를갓다오는것을 시내서천대면뎡(西大門千代田町)어두운곳에서 맛나부수란리후 그의삼단가른 머리까지도허버린후에집으로돌아와 얼마동안 동거하엿스나 항상그들의사이는 불만에 불만을 더하야 오늘까지지나오든바 전긔엄이는 지난십오일에 자긔친가로 단이러왓다가 밤아홉시경에시내덕산뎡(市內德山町)자긔사촌의집에다니러갓다가오든길에 자긔남편을 맛나그와가티싸옴을하엿다는바그리유는몃칠전에엄이의형부(兄夫)가충청도(忠淸道)로부터처가에다니러온것을 자긔안해와 간통을하엿다는리유이며 엄이는 중상을당하엿슴으로 그의남가족은 지난십륙일 대구경찰서에 들어가서설류를밧고 무사히 나왓다는바장차그의장말이 엇더케 전개될는지일반은 주목중이라고(대구)

長湖院의火災

경긔리천군장호원(京畿利川郡長湖院)시장압에 십사일 오후팔시경에 불이 나 나일시는 자못위험하얏스나 전호원(長湖院)상인방소방조의 진력으로 동일시경에 겨우진화되엇나는데 손해는 약四백원이라하며 원인은 방금 조사중이라고(장호원)

合同團體와交涉

호남선 송뎡리(湖南線松汀里)에거주하는 조선사람만으로모히어 송뎡번영회(松汀繁榮會)란 한 단체를조직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그단테에서는 당디 사정으로보와 시급한문뎨를해결하기 위하야 청년단데(青年團體)와 로동단데(勞働團體)에교섭하고자교섭위원(交涉委員)으로 윤원필(尹元弼)리성표(李成表)최병윤(崔秉胤)장안선(張安善)씨등을 선정하야 오는십구일에 송뎡로동조합회관으로 각단데의대표를 청하야 모든 문뎨를교섭하기로 결뎡하엿다더라(송뎡)

市內古市町에 新設될託兒所

시내모 본인의유지는경성에탁아소(托兒所)를설치코저그동안 경성누와협의하던중이번에삼사십명을수용할 탁아소를 설치하

正友會大會召集
解體를討議코저
래이십일일시텬교당에서

사상단데 정우회집행위원회(思想團體正友會執行委員會) 에서는동회해테를 결의하엿다함은과보한바와갓거니와이케그대회를 오는이십일일오후세시에 시내견지동시텬교당(侍天敎堂)내에서열기로결뎡하엿나는바각디바에산재한회원들에게는주소를분명히아지못하야 신문에 광고를 내이기로하얏나는데 그토의사항은다음과갓다더라

◇討議事項

一、正友會解體에關한件

一、其他

奇特한學生

경북 안동군(安東郡)례안공립보통학교(禮安公立普通學校)륙학년생도 리봉영(李鳳泳)(一七)권태익(權泰益)(一七) 리용률(李龍律)(一七)의 세학생은 수일전에 대구사범학교(大邱師範學校)에가서입학시험을보고 지난십이일 오후두시께수룹떠나는 경북자동차를 타고 례안에돌아가든중도리원(桃李院)강에서 소포(小包)한개를 습득(拾得)하야주인을차저관하라고 긔자동차안동정류소(停留所)에맛겻다고 일반손님들의 칭찬이 만다는바 불품은안동군읍내서부동 리용한(安東郡邑內西部洞李用漢)의것이요 속에든것은 귀중품과 의복등속이라고(안동)

怪中國人 釜山서逮捕
륙만여원가진자

지난십오일저녁 관부련락선창경환(關釜連絡船昌慶丸)이부산에착륙하자 부산수상경찰서(釜山水上署)에서는 창경환으로온 엇던중국 청년한명을 인치취됴중이라는데 이케그내용을 듯건데그청년은 대판천구 이십이번디 삼익합자회사뎜원(大阪川口二二 三益合資會社店員)궁옥봉(宮玉峰)(三四)이란자로 지난십사일 오후여덜시 대판매뎐(大阪梅田)역발렬차로안동현(安東縣)까지가는바 십원 지폐로륙만이천원을 휴대도주 하엿나는 현구경찰서의 통지가잇서 수상서에서 데포하엿스며 그자는실부(實父)의명으로귀국한다고진

여우잡는爆發藥으로 小兒一名橫死
은어속에너어둔폭발약을 정말은어로알고깨물어서

함남단천군 남두일면신평리(咸南端川郡南斗日面新坪里)에서는지난음력신이월이십팔일오후세시쯤되어 멀정한 아이가여호잡는폭발약으로인하야무참하게도죽엇다는데그자세한바를들으면그아이는전긔신평리에사는 조영옥(趙永玉)의아들 조두원(趙斗元)(三)이우화교에가서공부를하다가 음력설이라고 그날집에가서이리저리뒤어다니며놀던중두원은자긔삼촌조영협(趙永協)과이웃인광천면와동리(廣泉面瓦洞里)에잇는윤하송(尹河松)농이길가에서 여호잡는약을 주고 밧는것을보고 여호를속이려고 은어(銀魚)속에너흔 폭발약을 은어로만 알고씹나하나주어요하고깨아서가지고 다라나면서 입에다너코깨물어서 폭발되어 입본여러갈내로 쪼키지어 무참하게도 죽엇다더라

昨夜上仁川에서 七十老婆가轢死
가족들은장비도업고
수용처도업서당황해

십칠일밤 여덜시반경에 인천부률목리(仁川府栗木里)이백오십이번디 김인영(金仁永)(四○)의모친수씨(朱氏)라는일흔두살된로인은 마츰 금곡리(金谷里)아는사람의집에갓다가 자긔집으로돌아가든중상인천역(上仁川驛)『가랑』마일』되뎜에서 길과선로가교차(交叉)된디뎜에 다다랏슬때에 마츰 경성(京城)에서 오후여덜시삼십일분에 상인천에 도착하는렬차가 오는것을 아지못하고 그대로선로를 건느다가긔차에치어참혹히 죽엇는데 이급보를 접한부근과출소에서 경관이 출장검시한후 시톄는 즉시가족에게 인도하얏스나 원래김인영은 생활이극히 곤난하야남의집곁방 한간을어더가지고 사는터로 시톄를가져가라하야도 정조에남의집에 시톄를가지고 갈수도업스며 당장에장사를 지내랴하고 도장비(葬費)가업서지내지를못하고 가족들은 엇지할줄을모르고 울기만하더라(인천)

百萬長者의令妹로 失行母와外國漂浪
薄情娘高命福의哀話 (一)
어려서부터고히자란명복은필경죄업는모친을바리고중국으로표랑까지하엿다

긔보‖시내관훈동(寬勳洞)오십륙번디 김성녀(金姓女)의외딸인고명복(高命福)(二二)이라는녀자가지난십륙일 오후여덜시경에 이십일세의핫다운 청춘을일긔로 그만세상을자긔 스스로떠나버리자 이말을듣는 그의애인(愛人)인의과대학생김종현(醫科大學生金宗鉉)이가 또한그의뒤를딸아 먼저가는 명복이의술픈놉지최후를 거듭밧게되엇다 고명복은 김성녀의 외로운딸이엇섯나 일즉이 아버지를여의고그 주석(高周錫)이라는방금동막(東幕)에유수한 부호의아들로된 오우하나인 옵바와함께 편모슬하에 그어머니 품 속에서 고히고 히사랑 스럽게 자라 낫섯다

낯이가고날이가서명복의옵바고주석은 나히이 미성 년이 되매 엇자즈러다니는 나뷔와가티 그도술에 맛들이어 풍류를조와하며달비테엇을 자취엇속에 노래부르기를 즐겨하엿든것이다 그러나 세상은엇지그에게만 행복을기리줄것이냐!청두(靑孀)에 발자최가 거듭될때마다 할사록 그의 아버지의 유산(遺產)은한주먹한주먹식 업서젓던 것이다 그리 하야 가세는 점점 쇠하야지것마는세상을 모르는어린누의 명복은 이때 까지도 오히그어머니의 품속에서 노래할뿐이엇다 말은 다시 변하야 아죽도 청춘에 남편을 일흔 그의어머니 김성녀는 슬하에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어엽부게 자라나지마는 남편의 사랑을일흔이일허버린그의 가슴에는 또한이세상에둘행한 청상(靑孀)의 마음괴다름이업시 이성(異性)의 단맛도 맛보고싶헛스며 정다운이성(異性)과도 속살거리고싶헛든것이다 타오르는 정열은엇지참을수잇스랴! 그는그만 엇더한남자의품에 안기게되엇스니 빼해동안한참어오든 구든수절(守節) 도 그의강한 청욕(性慾)은 점점더하야 음분(淫奔)에 가치위 졋엇다 그러나 이것은항상세상이모르는그의비밀이엇섯다 비밀은언제든지 비밀 ㄴ만 잇지안는것이다

째어진질그릇 조각이 되엇다쏘다진물을 다시 담을수업는것이다 째어진 그릇을다시부친들엇지 흠이업슬것이랴! 빼해동안 째씃하던그의 정조도 지금은다시회복할수업시된가운데에더욱 이것이세상에알려지라할때에그는정안에 유수한재산가의 미망인(未亡人)인만큼 또한 술하에 재롱하는 남매의얼굴을볼때마다 스스로뉘우치고 스스로붓그러운마음을 검치못하얏든지 드대어그는 조선을버리고 아즉십륙세의 옷으로말하면 봉오리와 가튼외딸명복을다리고멀리중국(中國)으로 나아갓섯다 이때에 고주석(高周錫)은 나히이미이십여세라 자긔부친의 유산을 거의다 탕진하얏고 또한자긔어머니의 비행(非行)도 알것마는 자긔어머니의 비밀을 세상에몰어볼수도업고 오즉자긔 마음속으로만 나날이깁허가는 번민을 익이지 못하엿스렷마는 애닯다 그는텬성(天性)이수량하든동시에 넘우나리지(理智)에어두윗섯스며 더욱이세상에무서운아편(阿片)중독(中毒)이 되엇 섯든지라 그는 다만눈압헤세상을 몽룡히 볼뿐이엇섯다 그리하야 자긔모친을 사랑하는누의명복이와 함께멀리중국으로도 보내고 외로히 조선에 떨어젓섯나(계속)

青年精神病者가 親父를亂刺絶命
그자는경찰에데포취됴
屍體는即時解剖에부처

경주군 경주면 성동리(慶州郡慶州面城東里)에잇는최완조(崔完朝)라는 금년이삼일세의청년은 보통학교를마치고 경주계림학교(鷄林學校)까지다니다가정신에이상이 생기어 집안사람들에게 폭행을 함으로그의 부친최한식(崔翰植)은 아들의병을고치라고 치료도 시키고 종종구타도 하얏든바 완조는 그부친을 크게원망하고 잇다가 지나간십륙일 미명에돌연히 단도로 자긔아버지의 전신을찔러 필경절명케하고 집안사람에게는 아모말도업시 문밧그로다라나서 십여정떨어저잇는 친척의집에가서 이약이를 하엿다는데 경찰서에서는 즉시범인을 구검하야 엄중취됴하며 시톄는즉시 해부에 부첫다더라(경주)

米糖專門竊盜
도합팔백여원어치

부내 황금정일뎡목 일백칠십구번디(府內黃金町一丁目)박양규(朴陽圭)(二四)명치뎡일뎡목(明治町一丁目) 리만길(李萬吉)(二一)동길평성(金平星)(二三)등의 세명은 일정한 직업이업는자들로본뎡일뎡목(本町一丁目)에사는삼호야(三好野)의젼원인박시동(朴氏童)과공모한후전긔삼호야의 창고로부터 지난十월부터 계속하야사탕(砂糖)과백미(白米)를이십여회나절취하야다른곳에매각하야주식(酒食)에소비한일이발각되어십칠일오전에종로서에 인치되어 목하엄중한취됴를밧는중이라는데피해액은천부팔백원가량이라더라

愛妻를亂髮毆打

지난십오일 오후아홉시경에 대구시내 경뎡일뎡목(市內京町一丁目)큰길거리에서 부부간의 큰싸홈이 일어나 일시는대혼잡을 일우엇는바 이제그내용을 들은바에의하면 시내남산뎡(市內南山町) 오십이번디조량춘(趙良春)(二七)이란자는 텬주교(天主敎) 신사로서 작년칠월경에 시내경뎡일뎡목 오십구번디 김성홍(金性弘)의둘재딸 엄이(任伊)(二八)와 혼인하엿든바 엇지된 리유인지 혼인한지 얼마지나지못하야 그들의사이는 항상불만으로 지내

樂園의丁抹
歐羅巴갓든길에 (三九)
方台榮

獨逸『함불쿠』

나는방금에『부레데사』港口를出發하야 獨逸北領과接續한丁抹『코펜하겐』에서 國境地方을지나 이튼날午前十時에 獨逸『함불쿠』에 到着되엇다 『함불쿠』는前獨逸皇帝 『카이자』가心血을다하야만든 獨逸艦隊의根據地인『길』軍港에接近한世界의 有名한商港 으로現在倫敦 紐育에對抗할만한發展은그位置가良好함에基因한것이나 그러나 大戰後 自由港으로認定된때로부터長足의發展을示하엿다 大戰後伯林이不安狀態에싸첫슴에 不拘하고 『함불구』만이速히恢復되어 活氣를띄인것은빌수들엇스나今日의繁華와活況을 보면果然伯林의比가아니엇다 予는午前中에는 昌谷領事館의案內로市中을求景하엿는데世界第一인『엘베』江對岸運河의 三百尺을미러隧道가잇서通行人과車馬가通行하게되엇다 兩端에는 昇降機數臺를設備하야 間斷업시自動的으로오르나리는데그規模의壯大함은評判과가티世界의第一이다 이것을보고 科學의力과資本의力이實로偉大함을

우리는想起할수가잇섯다 市內名所에는비사막氏의石造記念像이서잇다獨逸은어데를가든지『비사막』의 記念像이만흐나 『함불쿠』것이그中第一크다 『비사막』은晚年에『함불쿠』에 隱棲하고 이곳에오래동안잇섯슴으로 獨逸國民은 『함불쿠』에 莊嚴한大石像을建設하엿다는말을들엇다

『하겐페크』動物園 科學

에는昌谷領事의招待하야 午後에엿다 나는이港의全景을利用하야世界에比가업는猛獸國을보앗는데 獅子 虎 白熊과가튼猛獸에게 鐵欄을만들지안코 山의奇岩怪石을利用하야周圍에깁히塹壕를파그가운데에잇도록設備한故로 로解放하엿다 그런데그중十七八頭假裝의獅子는나무에리깁이업시自由로 園內를往來하야 곳山에잇슬때와가튼狀態를그대로가지고잇는것을보앗다 그런데觀覽者는거우四五間距離에서 볼수가잇서그同時的施設에는놀라지안흘수업섯다 나는動物園을보고다시『아스터』湖 로우에 떠운蒸氣船을타고遊伏하고 그이튼날急行列車로 伯林을經由하야丁抹의서울『코펜하겐』에다(終了)

『엘베』강우에架設한大鐵橋